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2016년 신년주일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16년 의무헌금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1월 떼제찬양과 기도모임이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4일(13:00~16:00)부터 7일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예산을 세우는 구역회가 17일 주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회중은 축도 후 송영이 끝난 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사 43:1-7 / 시 36:5-10 행 8:14-17 / 눅 3:21,22	2부 예배	골 4:2-6
-------	---	-------	---------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광혜자 이명희 강영님 이영옥 장은주 이국노 박호규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이혜경 강신철 홍순구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청파7속 (30대 모임)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떡 대 접 : 정연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모임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웃음을 끌고 가는

사내가 턱에 걸린 휠체어를 밀어주자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뒤로 젓히며
 덜컹, 웃는다
 휠체어를 밀어준다는 것이 그만
 여자의 이마 안에 감춰진 미소를 민 모양이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안면 쪽으로 밀려 나온 미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미소가 앞장서 간다
 휠체어를 미는 사내가
 여자의 미소에 웃으며 끌려간다
 미소가 웃음을 끌고 가는 언덕길 오후

- 김주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하진솔 선생 권혁순 권사

1월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김정주 최현옥 고숙이 김정미 최은미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기쁨과 평화

그리스도교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방식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 전통들 안에 담겨 있는 오래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소비 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모든 것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실재 앞에서 차분히 머무르는 행위는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완성에 이르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우리가 작은 것들의 진가를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에 감사하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도 않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배의 논리를 피하고 단순히 쾌락을 쌓는 일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는 부족한 삶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순간순간을 더 잘 즐기며 사는 이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과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를 체험하고 가장 단순한 현실에 익숙해져 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형제적 만남, 봉사, 능력 개발, 음악과 미술, 자연과의 만남, 기도 안에서 만족할 때 그러합니다. ...

지난 세기에는 절제와 겸손이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특정한 덕의 실천이 전반적으로 약화

될 때, 환경의 불균형을 비롯하여 많은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과신하게 되면 결국 사회와 환경에 해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평화롭지 않고서는 절제하면서도 만족한 삶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는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됩니다. 내적 평화는 생태계 보호와 공동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내적 평화는 삶의 깊이로 이끄는 경탄의 능력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생활양식에 반영됩니다. 자연은 사랑의 언어로 넘치지만, 소음이 계속되고 근심과 혼란이 이어지며 걸모습만이 승배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부조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서두르면서 마치 자신이 뭔가를 이룩하고 있다고 느끼고자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다시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합 생태론에는 피조물과 평온한 조화를 되찾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이상에 대하여 성찰하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분의 현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분한 태도로 살아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으며, 순간순간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 충만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에 핀 나리꽃과 하늘의 새들을 바라보라고 권유하셨을 때나, 당신께 질문하는 부자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 온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피상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병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